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장으로 탈바꿈

전북자치도-캠코, 국유재산 활용 자활지원 협약... 국유재산 활용해 취약계층 자립·경제 재도약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유휴 국유건물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자활사업 체계 구축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북광역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와 함께 '유휴 국유재산 활용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유건물을 자활지원사업장으로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자활사업장으로 적합한 국유재산을 발굴하고, 건물 개·보수와 함께 신용, 금융, 법률 교육 등 취약계층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광역자활센터 등과 함께 '유휴 국유재산 활용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광역자활센터는 해당 국유재산을 활용한 광역 단위의 자활사업을 지원하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는 사업 대상과 아이템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유휴 국유재산은 장기간 비어 있던 건물들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지역사회의 치안 문제를 유발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러한 국유재산을 자활사업에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한 기관 간 협력과 지원으로 자활사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18개 광역·지역 자활센터를 지원하며, 취약계층이 자활사업에 참여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청소, 집수리, 택배, 카페 등 261개소의 자활기업과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이재선 전북시군공노조연맹위원장 당선

“조합원 뜻 잘 받들고 실행 해가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전북 8개 시군(군산·익산·정읍·김제·완주·임실·진안·고창) 공무원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연맹(現 한창훈 위원장)은 12월 31일자로 제12대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11월 29일에 제13대 전북시군연맹 임원선거를 치렀다.

전북시군연맹 선거관리위원회(안남귀위원장)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11월 29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8개 시군 소속 총 60명의 선거인 명단을 확정하여 제13대 전북시군연맹 임원선거 일정을 진행했다.

이번 선거에는 현 진안군청공무원노동조합 이재선 위원장은 제13대 전북시군연맹 위원장에 단독 출마해 총선거인수가 60명 중 54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53표의 득표를 받아 98.15%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날 제13대 전북시군연맹 임원선거에 당선된 이재선 위원장은 “조합원의 뜻을 잘 받들고 실행해가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단합하는 전북연맹이 되어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상생소통하고 때로는 투쟁을 마다하지 않는 조합원이 행복한 전북연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 제12대 전북시군연맹위원장의 임기는 12월 31일자로 종료되며 제13대 임원은 2025년 1월 1일자로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이만호 기자



2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4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대회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유공자 시상상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계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전북자치도 자원봉사자대회 개최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개인·정읍시 최재근·단체 시·남원 자율방범연합대·단체 군·순창 쌍치 자율방범대·가족·익산김영한가족 선발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는 ‘세계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2024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자대회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2일 오후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특별한 자원봉사자(단체), 김관영 도지사, 문승우 도의장, 유정기 부교육감,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매년 12월 5일은 UN이 지정한 ‘세계 자원봉사의 날’로 UN본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UNDP산하 자원봉사 담당기구인 UNV(UN Volunteers)의 15주년이 되는 1985년, 처음 지정됐다. 우리나라에서도 1989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으며, 2006년부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3조에 의거한 법정기념일로써 ‘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차원에서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한 해 동안 자원봉사에 헌신해온 전북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김관영 도지사의 격려사를 비롯해 자원봉사 유공자 포상과 함께 호원대학교 공연미디어학부 뮤지컬 전공 대학생과 원불교 봉공회 자원봉사자들의 끼와 재능을 발산한 뮤지컬 창작

공연과 갈라쇼가 펼쳐 축제의 장을 뜨겁게 달궜다.

또한, 자원봉사왕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한 자원봉사유공자(단체)를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1년도부터 시행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활동 봉사자 중 연간 봉사활동시간이 가장 많은 개인부문(정읍시 최재근 1,173시간 30분), 단체 시부문(남원 자율방범연합대 3만1,335시간), 단체 군부문(순창 쌍치 자율방범대 2,184시간), 가족부문(익산 김영한가족 2,342시간 30분) 선발하여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에 자랑스러운 이름을 올렸다.

김관영 도지사는 “자원봉사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사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바꾸는 힘”이라며, “이번 수상은 개인과 단체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를 떠받치는 든든한 기둥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보람과 긍지를 갖고 활동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고영호 이사장은 “이웃과 서로 나누고 배려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신 자원봉사자 여러분 덕분에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질 수 있었으며, 봉사자들의 희생과 값진 땀방울에 감사드리며 그 노고와 고마움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월드비전 “을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도내 가족돌봄 청년 120가구에 난방비 30만원씩 지원 예정

전북자치도는 월드비전 전북사업본부가 도내 가족돌봄 청년들의 겨울철 난방비 지원을 위해 총 3,600만원을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0가구의 청년들에게 각 3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월드비전은 지난 4월, 전북자치도와 가족돌봄 청년 발굴, 지원, 협력방안 마련 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족돌봄 청년 160가구에 생계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청년(소)년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김동혁 월드비전 전북사업본부장은 “가족 돌봄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이번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앞으로도 두루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년을 지원하겠다는 좋은 뜻을 실천해 주어 감사하다”며, “가족돌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자립에 도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가족돌봄 청년 등을 위한 사업을 올해 8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신청 및 상담은 전북 청년미래센터 ☎ 901-1339를 통해 가능하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